

[ 사회 ]

# 조선대 “교원 임용 등 학사 일정 더 못 미뤄” 긴급 사무처리권 행사키로

## 28일 긴급이사회

지난 7월초부터 이사진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조선대 법인이 원만한 학사일정을 위해 긴급사무처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25일 조선대 법인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4시 신규 교원임용 등 2학기 학사일정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이사회가 열린다. 긴급이사회에는 지난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된 김용재 전 이사장 등 직전 임시이사가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조선대 교원 임용 ▲조선대부속중·고 교원 임용 ▲조선대공대 교원 임용 ▲조선대부속고 교장 재임용 ▲조선대 의대 임상수기센터 신축 승인 ▲아외음악당 재건축 승인 등 7개 안건을 다루게 된다.

조선대에서는 최근 채용절차를 마

친 신규임용 교수 26명과 정년 등 면직 교수 13명, 명예 교수 2명 등, 조선대부속중·고는 정년퇴직자 및 기간제 교원 임용자 14명, 조선대공대는 명예퇴직자와 승진 임용자 4명 등에 대한 인사 문제가 이사회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조선대 측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들 안건에 대한 절차를 문의한 결과 민법 691조에 의해 처리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민법 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 따르면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수임인 등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까지 조선대는 ‘이사 공백 사태’가 정이사 선임 결정을 8개월 이상 미루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압박 카드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의도로 긴급사무처리권을 행사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경우 학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최근 조선대 등 정상화를 추진 중인 4개 대학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차기 회의는 9월 4일로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는 정이사 선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용재 전 이사장은 “임기가 끝난 뒤 적어도 한 달 안에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한 결정이어서 긴급이사회에 참여하긴 하겠지만 긴급처리사무권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현실이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조선대 하계 학위 수여식 '코스모스 졸업' 시즌이 시작했다. 조선대는 25일 교내 서석홀에서 '2008년 하반기 석·박사학위 수여식'을 갖고 석·박사 28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전남대는 26일 단과대별로 학위수여식을 갖는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전교조 전임근무, 교원 직무 아니다”

### 광주교범 판결

전교조 전임근무는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교범 제2행정부(부장관사 조영철)는 25일 박모(52)씨가 전북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육위원선거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전북 교육위원 승계자로 나를 정한 것을 무효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휴직한 뒤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한 것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노조 전임자도 교원 복리증진, 교

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므로 입법론적으로는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해 반대로 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익산시 선관위는 2006년 7월 31일 치러진 제5대 전북 교육위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1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교육위원 승계 예정 1순위였던 박씨를 승계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사 경력에 10년 1개월 21일이었던 박씨는 이 가운데 1년이 전교조 사무실에서 근무한 휴직기간에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는 후 순위자의 소청이 받아들여져 교육위원직을 승계하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

## 국민 10명 중 8명 “법 권위적·불공평”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법에 대해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철 서울교범 부장판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국 60년 한국법률가대회’ 심포지엄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이 실시한 ‘2008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한 자료를 25일 오후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는 “권위적”이라고 했고 32.6%는 “공평하다”고 답해 76.2%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민주적이다”는 응답은 14.2%, “공평하다”는 답변은 8.9%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장애 아동 조기 발견 지원 교과부 ‘특수교육 5개년 계획’

앞으로 영·유아의 장애를 국가가 직접 조기에 발견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장애학생들도 동등하게 참여해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총 7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수시로 선별검사를 통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현재는 교과부가 실시하는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통해 서민 선별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 ‘효사랑 녹색문화 산업전’ 생태 체험장 내달부터 학생들에게 무료 개방

광주시 남구청은 대촌동 양과마을 일대에 조성된 11만4천㎡ 규모의 ‘효사랑 녹색문화 산업전’ 생태체험장을 다음달 1일부터 지역 유치원생과 초·중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생태체험장은 47종의 풀을 재배하고 있는 8만2천500㎡ 규모의 풀 단지와 1만6천500㎡의 관상식물 텃밭 10곳, 1만㎡의 동과재배단지, 5천㎡의 꽃단지가 조성돼 있다. 효사랑 녹색문화 산업전 현장에는 황금콩, 대원콩, 갯끈이 콩 등 공작물 47종과 수제미, 여주, 박, 토란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인근에는 꽃단지도 펼쳐져 있어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광필기자 kps@kwangju.co.kr

남구청이 이날까지 접수한 생태체험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8천명이 신청했으며, 견학을 요청하는 문의전화도 잇따르고 있어 이번 주말까지 추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남구청은 포토존을 마련해 기념사진 촬영도 지원할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대규모 공단지와 관상식물 등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효사랑 녹색문화 산업전’은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간 대촌동 양과마을 일대에서 열려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광필기자 kps@kwangju.co.kr

## 광주 지하철 공기 ‘양호’

### 미세먼지 등 기준치 이하

광주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 공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25일 “(주)누리환경기술센터가 최근 광주 지하철 1호선 지하역사와 전동차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9개 항목의 농도가 모두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은 미세먼지(기준 150μg/m<sup>3</sup>) 농도가 69.6μg/m<sup>3</sup>, 이산화탄소(기준 1천ppm)는 420.7ppm, 일산화탄소(기준 10ppm) 0.8ppm, 포름알데히드(100μg/m<sup>3</sup>)는 14.2μg/m<sup>3</sup>로 나타났다.

또 이산화질소(기준 0.05ppm) 농도는 0.018ppm, 라돈(기준 4.0pCi/l) 0.4pCi/l, 휘발성유기화합물(기준 500μg/m<sup>3</sup>) 162.9μg/m<sup>3</sup>, 오존(기준

0.06ppm) 0.003ppm 등 각 항목 모두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다.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전동차 내 공기질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6.2~123.2μg/m<sup>3</sup>, 이산화탄소 572.1~831.9ppm으로 조사돼 각 요소의 권고 기준치인 200μg/m<sup>3</sup>, 2천 500ppm 보다 양호했다.

특히 터널 열차중에 의한 미세먼지 유입 차단 효과가 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문화전당역과 금남로4가역 등 2구간 6개 역사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 평균 59.9μg/m<sup>3</sup>를 기록, 스크린도어가 없는 다른 역사에 비해 평균 9.7μg/m<sup>3</sup>가량 낮았다.

공사 관계자는 “광주 지하철은 시공 때부터 석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대합실, 승강장에 최신 전기집진시설을 포함한 3단계 공기정화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캔 음료·아이스크림 영화관 반입 허용

캔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 일부 외부 음식물은 영화관에 갖고 들어가 마시거나 먹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대형 복합상영관의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한 규제를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시네마에서는 아이스크림과 용기 덮개가 있는 커피의 반입이, CGV와 프리머스시네마에서는 캔 음료와 봉지에 담긴 과자의 반입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우중충한 하늘** 8월 26일 (음 7월 26일) 날씨

구름이 많이 끼었으며, 한 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광주	구름 많음	21~29℃
포항	구름 많음	21~28℃
안동	한 때 비	22~26℃
대구	한 때 비	21~28℃
부산	구름 많음	19~29℃
인천	한 때 비	20~28℃
서울	한 때 비	20~28℃
대전	한 때 비	20~27℃
충주	구름 많음	18~29℃
청주	구름 많음	20~29℃
전주	구름 많음	19~29℃
제주	구름 많음	19~29℃
울릉도	구름 많음	20~29℃
독도	구름 많음	19~29℃
제주	구름 많음	20~25℃

▲해돋이 06:00 ▲해질 19:07 ▲달돋이 00:26 ▲달짐 15:54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9/1(월)
날씨						
최저/최고	20/29	21/30	21/31	22/30	22/28	22/28

**대법 “숙박업소 ‘야동’ 불법”**

숙박업소에서 ‘야동’(음란 동영상)을 틀어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는 한 광역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난해 5월 방 2곳에 컴퓨터 동영상 재생 기계를 설치해 놓은 뒤 투숙객들에게 음란물 30여 편을 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Bayer HealthCare www.canesten.co.kr

**좋은아빠되고 싶다면, 무좀부터 고치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쉽게 옮겨질 수 있는 무좀 곰팡이균 바이엘 카네스텐 크림으로 시원하게 잡아주세요!

전세계 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30년 이상 판매되고 있는 카네스텐 크림은 클로트리마졸 성분을 함유하여 무좀, 가려움증의 원인인 곰팡이균에 강력하게 작용, 무좀을 시원하게 잡아드립니다.

문의전화 02-829-6600, 6946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본약품이 없을 수 있으니 처방전 '처방장의 처방사실'을 잘 읽고 의사·약사는 성의껏 상담하십시오.

카네스텐 크림 광고문의전화 : 965-0900